

1/23/22

설교 제목: 성막 건축 담당자를 지명하시고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심

말씀: 출애굽기 31 장 1-18 절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출 35:30-36:1)

(출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1: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출 31: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출 31: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 31: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출 31: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절관주** 출 35:34

(출 31: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출 31:8)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출 31: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1: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출 31: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안식일

(출 3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출 31: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 31: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1: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 31: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증거판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만나라
하였으며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만나라
하였으며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40 일을 함께 지내며 율법과 성막 식양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 성막을 건축할 자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후 말씀을 마치시고 십계명을 두 증거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에 대해 지시하신 후 그것을 건축할 자로 브살렐을 지명하십니다.

(출 3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1: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हु은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을
세웠던 자로 유다의 4 대손(유다-베레스-헤스론-갈렙-훌-우리-브살렐)인데 하나님은 훌의 손자
브살렐을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브살렐을 임명하신 후 그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점일획도 어긋남이 없이 명대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임의대로 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부터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계십니다.

(출 31: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출 31: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출 31: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출 31: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출 31: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출 31:8)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출 31: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1: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출 31: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들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또한 오홀리압을 브살렐의 조력자로 임명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곧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브살렐과 오홀리압 밑에서 그들을 돕도록 하십니다.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 직조에 능한 자였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브살렐 혼자서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동역하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서 동역해야 합니다.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전 12: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전 12: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자를 지명하신 후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재차 명령하십니다.

(출 3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가리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최초의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식일이 첨가된 것입니다.

(출 31: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 31: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1: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출 31: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나 추방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권(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같은 안식일 준수법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안식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범하는 자를 징계함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 10:13)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 모두 당신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는 순간에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렘 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 백성을 쉬게 하여 숨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출 23:12)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숨을 돌릴 여지도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쉬게 하여 평안하게 해 주려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출 2:24)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죄 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 즉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여 구원의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엄명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 놓으신 주의 날로 승화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창조인 인간 구원 사역이 필요하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증거판 둘에 십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십니다.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만나라 하였으며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만나라 하였으며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엄명하시는 것입니다.